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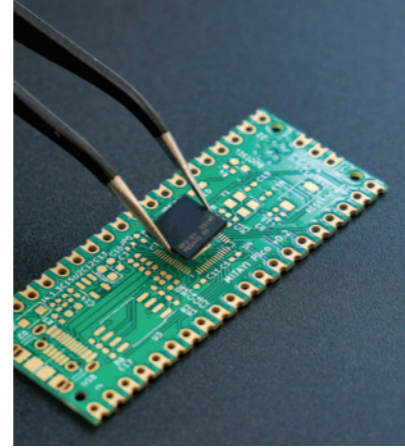
11-7000126-000051-08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일 2022년 09월(통권 제18호)
발행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작 굿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Date of issue 09/2022 (Vol.18)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인사말 PRESIDENT'S REMARKS

04

국가 균형발전 위한 지역혁신,
그 중심에 거점 국립대가 있습니다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are the center of regional innovatio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K-NU10 포커스 K-NU10 FOCUS

05

거점국립대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고등교육혁신·지역균형발전 모두 이룬다

Achieving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Balancing Regional Development by Nurturing Talent in Semiconductors Driven by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09

국립대학육성사업 우수성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학 방향 모색

Finding the Right Direction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rough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13

국가거점국립대의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의 발전방향

The Way Forward with the Development of a Digitally Integrated Education System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칼럼 K-NU10 COLUMN

16

'회복'을 넘어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 팬데믹 이후, 균형발전시대를 위한
정부와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
For a "Healthy" Korea, Beyond Its
Recovery: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in the era of
balanced development after the pandemic

K-NU10 뉴스 K-NU10 NEWS

18

3년만에 열린 제전으로
'다시 하나 된 거점국립대'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ecoming One Again Through the First
Sports Festival in Three Years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2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4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6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8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0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32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34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6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38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40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42

Introduction to Korea NU10

국가 균형발전 위한 지역혁신, 그 중심에 거점국립대가 있습니다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are the
center of regional
innovatio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김동원 Dong-Won Kim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
전북대학교 총장
Chairman,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Presi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결실의 계절입니다. 새 학기, 캠퍼스에도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세가 진정되면서 대학도 정상궤도를 되찾고 있어 다행입니다. 지난여름 의미 있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지역사회
와 따뜻하게 동행하려는 각 대학들의 노력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립대학이 지
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서 지역의 교육·산업·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들은 교육·연구·특성화 등 대
학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상생협력 기반을 닦아왔
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총장협의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주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 중심 역할을 거점국립대가 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도전적 질적 연구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새
로운 시대, 더욱 새로워지는 거점국립대를 주목해주시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The season of fruition has come. With the new semester, the campus is
full of vitality. It is fortunate that the university is returning back on track
as the spread of COVID-19 has subsided. There was a meaningful forum
last summer, which was a place to share the results of the national univer-
sity development project. It was really nice to see the efforts and fruits of
each university to warmly accompany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uni-
versity's own projects.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to lead the bal-
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national university as a
central institution for regional innovation is to lea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industry, and culture. Through
this project, I believe that national universities have strengthened their
unique capabilities such as education, research and specialization. We be-
lieve that we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win-win cooperation through
projects like shared network project.

This year, Our presidents' Council is conducting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role of regional universities'.
It is that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building
a platform that brings new vitality to the local community by uniting local
innovators.

To this end, 10 Korea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are changing. We are
revitalizing the local universities and community by nurturing talented peo-
ple through a shared education system and conducting challenging regional
research. Please pay attention to the newly changing national flagship uni-
versities in a new era. We will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Thank you.

거점국립대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고등교육혁신·지역균형발전 모두 이룬다

Achieving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Balancing Regional
Development by Nurturing Talent
in Semiconductors Driven by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김준환
한국대학신문 취재 부국장
Joon-hwan Kim
Deputy Director of
Coverage for the
Hankook University
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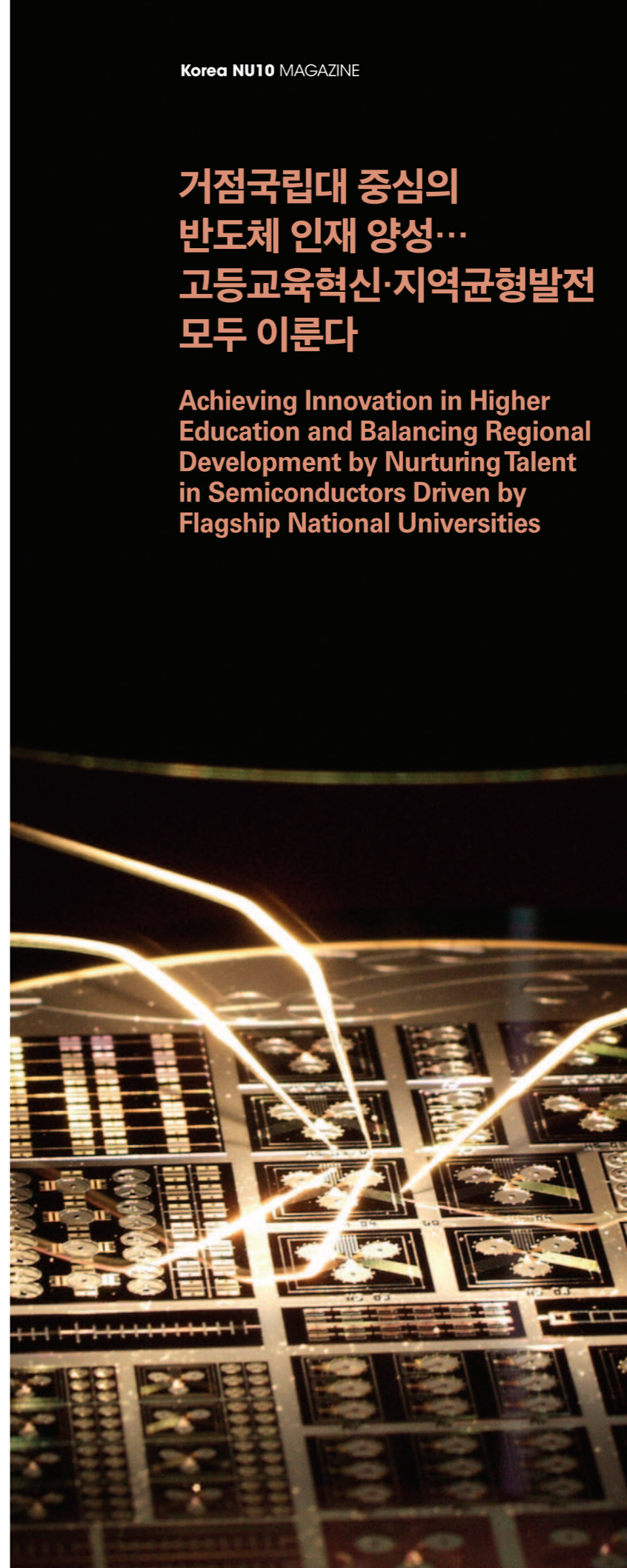


반도체 학과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갈등이 여
전하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 신·증설 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산업
육성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인
재 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문제는 반도
체 인재 양성 정책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역대학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
이다. 반도체 인재 양성이 수도권대학의 정원 증가로 수도권-지방 양극화
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적절하
게 잘 짰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상당하
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

Conflicts between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ocal universities continue over the issu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semiconductor departments. This is because there are growing conc-
erns that the plan to create and expand the number of departments
in high-tech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will lead to a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sidering that fostering the semi-
conductor industry is connected to Korea's future food, there seems
to be some consensus on fostering semiconductor talent. The prob-
lem is that local universities are strongly opposed to the proceeding
policy of fostering semiconductor talent. They are pointing out that the
polar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 local area could intensify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t-
tempting to foster semiconductor talent.

Ultimately,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n fostering semicon-
ductor talent is on the proper path. Since semiconductors have a sig-
nificant impact and importance to the Korean industry, the time is



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반도체가 지난 50년간 기술혁명의 중심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1의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스마트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의 확산 등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동차와 항공, 가전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역시 반도체를 통해 가능하다. 새로운 첨단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은 반도체 기술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첨단 재료나 신소재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고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의 발전에도 반도체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는 관련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 같은 반도체 산업 확장세 전망에 따라 산업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약 12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이 중요한 어젠다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교육계에서는 지역대학들이 우려하는 '수도권 쏠림'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지역거점대학을 선정해 반도체산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수도권 제외된 9개 광역자치체에서 거점대학을 포함한 10여 개 지역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100여 명씩 연간 1,000명의 학부생을 반도체 인재로 양성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주체인 지역거점국립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으로 국가경쟁력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지방대학 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밀접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계한, 채용연계형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이미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채용연계형) 계약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 인재 확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방에서도 경북대와 디지스트는 각각 연 400명 이상을 배출할 '반도체 전문대학원 시스템' 구축, 학사급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계약학과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대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우선 배치해 파격적 지원을 하면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 중심의 지역특화형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유망한 민간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完비한 지역체류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관련 기업과의 협업으로 실무역량까지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인재의 육성에서 시작해 그 인재의 지역 정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right to try to implement policies with great interest in fostering semiconductor manpower at the national level. Semiconductors account for about 20 percent of Korea's total export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emiconductors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of the past 50 years. It is Korea's number one industry in name and reality.

In particular, as the world has gon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the semiconductor market is widely expected to grow further due to increased demand for smart electronic devices through remote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and the spread of autonomous and electric vehicles. The high value-add of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aviation, and home appliances is also possible through semiconductors. The competitiveness of new high-tech industries and products is often based on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materials and new material technologies, as well as information technology (IT), biotechnology (BT), and nanotechnology (NT). Semiconductors will inevitably have a huge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The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predicts that demand for the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will increase due to the prospect of such expans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is predicted that about 127,000 additional people will be needed but lack in the next 10 years.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for an even supply and demand for manpower. There should be no disagreement in that training semiconductor professionals is an important agenda. Then what is the problem? As stated in the beginning, the key in the education community is how to solve the issue of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 issue which local universities are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 seems to be devising several policie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first thing to consider when trying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to fav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suggestion that nine metropolitan governments, ex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lect about 10 regional universities, includi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train 1,000 undergraduate students a year, an average of 100 per university, is persuasive. I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 key player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ceiv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support, it could be one of the pillar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on the front line of the global semiconductor hegemony war. This is in line with the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hich declared the "era of local universities" while utilizing the exist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ntract department linked to employment in connection with semiconductors. There are already employment guaranteed contract departments linked to companies in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tributing to the securing of outstanding talent. Outside of Seou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DGIST are planning to establish a semiconductor graduate school system that will produce more than 400 students a year and introduce semiconductor contract departments to foster undergraduate-level manpower in the semiconductor field. If semiconductor related departments are as-

실제적인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일례로 많은 대학이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또는 나노디그리) 학위과정 제도를 활용하면 학과 신실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된다. '모듈형 반도체 연계전공'을 만들 경우에도 여러 분야의 학생들이 반도체를 복수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거점국립대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8월 22일 발표했다. 주요 정책 중에는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9월 4일부터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반도체 인력 양성 카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사립대' 등은 하향평준화와 사학자율성 침해라는 한계 때문에 추진되기 어려웠다. 반면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상향평준화'를 이뤄내는 방식은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유리하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대학의 화두이자 글로벌 산업계의 이슈다. 이참에 고등교육혁신도 이루고 지역사회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대학가는 이번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천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때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학과 신·증설 문제는 지역 거점국립대와 연계된 인재 양성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위기이자 국가 전체의 위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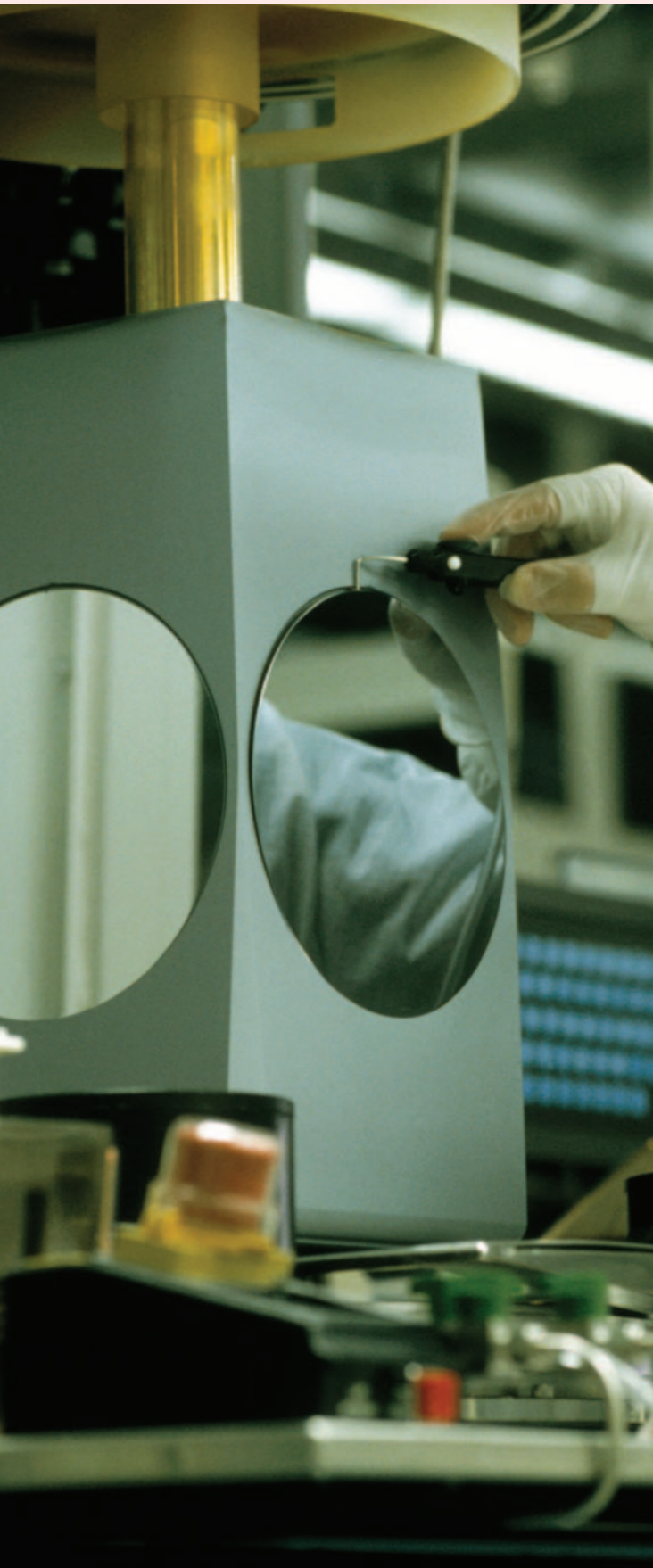
signed to local universities first, and provide outstanding support, it is highly likely that young people will remain in the region and not go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this occa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semiconductor-oriented industrial model and establish a local residential talent training system with good settlement conditions which gives young talent opportunities to land jobs in large companies and promising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a plan must be prepared to establish an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at can foster human resources with practical capabilities through knowledge of the high-tech industry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compani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realized when we start with fostering local talent that leads to the local settlement of that talent.

The preparation of practical semiconductor education programs is also a key to help cultivate talent specializing in semiconductors. For example, the use of the Micro Degree (or nano-Degree) program run by many universities can reduce the burden of establishing a new department. A modular semiconductor-linked major can also draw students in various fields to complete a minor in semiconductors. These educational programs are useful ways to cultivate the professional manpower necessary to build a successful local semiconductor cluster. In this process, joint operation of the curriculum using the infrastructure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an be considered a realistic counterm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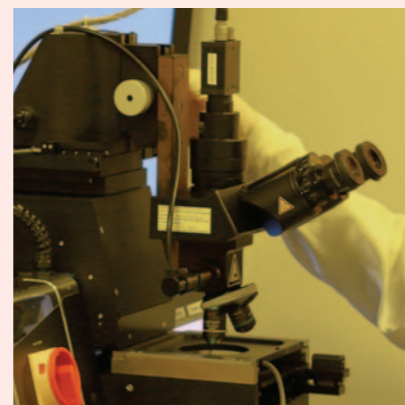
The government announced on August 22nd a plan to support the expansion of digital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apacity strengthening for the entire nation with the aim of fostering 1 million digital talents. Among the major policies was a plan to train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Earlier, on the 4th,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 also known as the Special Act on Semiconductors, was implemented. With this law implemented, corporate investment support in the strategic industry will be greatly strengthened through designating specialized complexes,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easing core regulations. The demand for expanding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programs and priority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will also be me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strategic industry specialized university/graduate school, education programs specialized in the strategic industry can be provided, and the number of related departments can be expanded. Specific measures to suppor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pledge to train semiconductor manpower will be utilized.

Timing is important in policy making. The National University Integrated Network and the Public Private University, which were proposed as a way to alleviate and resolve the university ranking where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at the peak, were difficult to promote due to limitations such as lowering education quality and infringement of freedom of privat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achieving upward equalization by intensively fosteri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s advantageous for receiving wide support in that it can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ea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plan to train semiconductor talent with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t its center can be a catalys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a hot



topic for local universities and an issue for global industries. I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achieve higher education innovation and revive the local community.

Several policy proposal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proposed over the 100 day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community is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declared this the era of local universities.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s begins when local universities are competitive. In this regard, the issue of new and expanded semiconductor departments should be set in a policy direction as a strategy for fostering talent linked to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local crisis is a crisi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 crisis of the entire country.



국립대학육성사업 우수성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학 방향 모색

Finding the Right Direction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rough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이 지난 7월 18일과 19일 대전에서 마련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속적 재정 지원을 통해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기초학문 보호와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에 다양한 성과가 도출됐다. 국가거점국립대의 우수 사례를 조명해 본다.

A forum took place in Daejeon on July 18 and 19 to share the past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which supports the autonomous innov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which began in 2018, led to a rise in education costs for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direct investment in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and various achievements in the public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field of basic studies and contributions to community. Let's highlight the best practice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강원대는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대와 강원도, 육군2군단이 공동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관·학(軍·官·學) 협력사업으로, 군장병들에게 취·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후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군장병 115명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드론', '앱(APP)',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의 첨단산업 분야 창업교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 1기 수료생인 전정표 병장은 앱 개발업체 '아미원'을 창업하고, 이종혁 준위가 1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3기 수료생 김승우 병장 등 4명이 '국방 Start-up 챌린지'에서 최우수상(국방부 장관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우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Kangwon Open Army Startup Program was deemed an excellent case. The 'Kangwon Open Army Startup Program' is a military-government-academic cooperation project jointly operated b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province, and the Army 2nd Corps beginning in 2018. The program was created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ilitary servicemen to find employment and start businesses and in turn support local settlement after discharge. This yea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nducted startup education in high-tech industries such as 3D printing, drones, application, big data, AI, and blockchain for 115 military personnel. Sergeant Jeong-pyo Jeon, a graduate of the 1st term, founded the app developer Amiwon and Lieutenant Jong-hyeok Lee attracted an investment of 1 billion won for his project. Sergeant Seung-woo Kim and 4 other teammates, a graduate of the 3rd term, received the grand prize (Minister of Defense Award) in five categories in the 'Defense Start-up Challenge'. The program has shown excellent results through the systematic start-up support utilizing the university's infrastructure.

경상국립대는 지역 문화 자산을 발굴 연구하고, 관련 인재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상국립대박물관은 생물교육과 교수·학생들이 채집한 곤충 자료를 기증받아 2021년 곤충표본실을 설치하고, 특별전시해 지역사회에 공개했다. 더 많은 지역민과 문화자산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는 산청박물관에서 '나비, 날개를 펴다-산청 나빌레라' 특별전을 개최했고, 내년엔 함천박물관에서 순회전시를 연다. 박물관은 지난해 대학통합을 계기로 지역의 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발굴·전시하는 프로젝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conducting a project to discover and research local cultural assets and return related talents to the local community.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donated

트도 추진했다. 110년 역사를 가진 대학의 미공개 근대 사진과 관련 자료를 정리, 이를 국립진주박물관과 사진 도서로 발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들은 지역사 복원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한국복식자료 600여점을 기증 받아 정리 중이다.

경북대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대 지역사회공헌센터는 지난 1월,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및 지역사회 발전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이어 대학이 가진 인프라와 기능을 접목하여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는 'KNU-OCB(Open Culture Belt)'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경북대는 이미 대학 내에 확보된 미술관,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과 함께 문화주간인 5월 셋째주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주간에는 지역청년 뮤지션, 학생들의 버스킹공연, 지역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 상영,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져 지역사회 혁신과 성장에 공헌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대는 다양한 기초학문분야 학과를 기반으로 학문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간중심 기초·보호학문'과 '미래지향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새로운 학술비전으로 인문학을 '동아시아지식학'으로 재구성, 인문학 분야 학문 선도를 위해 학문적 생태계 복원과 학제 간 교육·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2018년부터 143개 연구팀을 지원하고,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개최해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동아시아지

insect data collected by professors and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Biological Education, set up an insect sample room in 2021, and exhibited it to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share more cultural assets with local residents, this year, the university held a special exhibition called "Butterfly, Spread Your Wings-Sancheong Navillera" at Sancheong Museum and will hold a traveling exhibit at Hapcheon Museum next year. With the university integration last year, the museum also promoted a project to discover and display photos of modern images of the reg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Jinju National Museum, it released modern photographs and related materials of universities with 110 years of history and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m in the form of photo books. The released photos have given great vitality to the restoration of local history, and more than 600 Korean clothing materials have been organized or donate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is accelerating its efforts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The KNUUSR (KNU Social Responsibility) Center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22, to serve as a community innovation platform and community development hub. Subsequently, upon combining the infra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it announced the full-fledged start of the KNU-OCB (KNU Open Culture Belt), which allows both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to enjoy various cultural programs. KNU held several events during Culture Week, the third week of May, in collaboration with the KNU Natural History Museum, KNU Museum, and KNU Art Museum. During this week, many events were held, including busking performances by local young musicians and students, screenings of films dealing with community issues, and art experience programs, providing a unique op-



식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어 협정이 체결된 해외 대학과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동아시아지식학의 새 연구 방법론을 모색해 기초·보호학문 확장성과 학술 역량 증진을 도모했다.

전남대는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라는 사업으로 지역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문학 대중화, 그리고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지역민이 함께 읽고, 도서 교환전, 톡 콘서트, 문학기행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문화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대학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엔 현재 지역 국·사립대학 1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기관별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독서 문화사업이 하나로 통합해 정착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도서관 네트워크를 시스템화하고, 공유와 협력으로 지역 공동체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대는 아시아 특수 언어캠프를 통해 대학 간 협력을 강화했다. 이 캠프에선 접하기 어려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아랍어 등을 배울 수 있다. 희소한 아시아 특수언어를 배우는 집체교육 방식은 전국서 유일하다. 2019년부터 6차례 진행됐다. 전북대는 부산외국어대와 협약을 통해 무료강의와 교재 제공, 학점교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20개 대학과 '한국대학연합'을 결성했고, 국립대육성사업 지원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동남아 이해를 돕는 특강과 대학원 진학 설명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대는 목포해양대와 구축한 '더 Dream Ocean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 대학이 교류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와 공동 운영, 교류행사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재학생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양 쓰레기 정보 제공 어플'이 제주도 정책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국립대 간 특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협력과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했고, 특히 맞춤형 현장 문제에 대한 학생 아이디어가 지자체 정책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충남대는 'CNU 드림 꾸러미(사제동행 특수실험실습)'를 통해 기초과학 후속 세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학부 고학년 또는 졸업생이 대학원 과정에서 제안한 연구 주제에 대해 교수의 지도와 특수 실험실습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학부부터 전공 적성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레 대학원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기초학문 분야의 창의인재양성을 통해 학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1주기 사업 동안 참여 학생 101명 중 92명이 대학원에 진학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96%

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contribute to the innovation and growth of the local commun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nurturing human-centered basic and conservation studies and future-oriented basic sciences for academic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its various basic academic departments. As part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it reorganizes East Asian Knowledge as a new academic vision in the humanities. It focuses on restoring the educational ecosystems as well as education and research efforts between academic institutes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o secure visionary leadership. In particular, from 2018 to the present, it supported 143 research teams to deepen self-research in the field of humanities to nurtur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and it held the East Asian Next-Generation Academic Forum to share research results of emerging researchers. In addition, the East Asian Intellectual Science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was held to enhance the global competency of basic and protection studies by exchanging academic and human resources at home and abroad, vitalizing joint research. In addition, they are seeking a new research methodology with East Asian knowledge studi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Basic and Protection studies by enhancing academic capabilities.

Chonnam University was recognized as an excellent example for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university library network, the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and the creation of a reading culture ecosystem with the project of Gwangju and Jeonnam Read and Talk. The project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ultural discourse through several linked programs such as book exchange exhibitions, talk concerts, and literature travel by selecting one book every year. In particular, it is receiving favorable reviews for sharing cultural experiences using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universities and forming a local community culture through communication. Currently, 18 local national and private schools are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It is also concluded that reading culture projects, which were operating sporadically by local institutions, have now been integrated and settled into o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systemize the community-library network in the future and make efforts to spread the reading culture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sharing and coope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strengthene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through the Asian Special Language Camp. In this camp, languages which were difficult to access, such as Malay, Indonesian, Vietnamese, Thai, Myanmar, Cambodian, and Arabic were taught. It is the only collective education method in the country to teach rare Asian special languages and has been conducted six times since 2019.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vides free lectures, textbooks, and credit exchanges through an agreement with Busan Foreign Language University. In addition, it has formed the Korea University Association with 20 universities in Korea, and all education is provided free of charge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Special lectures to help understand Southeast Asia and infor-

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연구성과 발표회는 자연과학대학의 대표적인 학술발표회로 자리매김했고, 관련 학회에도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등 기초보호학문 분야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충북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으로 고교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시행될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교과서 다양화에 힘쓰고, 자유발행제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과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국립대 최초로 고교학점제 관련 고시 외 과목 2종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중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연계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충북도내 15개교에 21개 강좌를 54회 진행해 실질적 진로·진학 기회를 제공했다. 충북대는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의 체계적인 지원에 앞서고, 국가거점국립대의 공적 역할 수행에 앞장서며 고교교육 혁신에 기반한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mation sessions for graduate school entrance were also well received. In the satisfaction survey, it scored a high score of 4.8 or more out of 5.

Jeju National University's Dream Ocean Network program established with Mokpo Maritime University is another excellent example. In this program, specialized universities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s shared their achievements through idea contests, joint operations, and collaborative events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Ocean Waste Information Provision App, which was selected through a student contest, was selected as a policy project in Jeju Island.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network between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ith weak industrial bases,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regions and of solving pending issues centered on universities. Finally, student ideas on customized field problems l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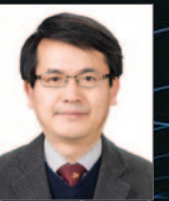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basic science through the CNU Dream Package (Teacher and student accompanying special experimental practice). In this project, undergraduate seniors and graduates conduct special laboratory exercises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s on research topics proposed by their master's program.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aptitude in the major and career exploration from the department that can be organically led to graduate school. Through this,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academic development can be formed through fostering creative talents in the basic academic field. During the first-cycle project, 92 out of 101 participating students went to graduate school, and the satisfaction survey showed 96% satisfaction. In addition, even in the COVID-19 pandemic, the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in a non-face-to-face forma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academic presentation of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nd is expanding the bas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basic studies by presenting research results to related confer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taking the lead in fostering future talent through innovation in high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region and the university. In order to stabiliz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ch will be fully implemented in 2025, CBNU has developed two subjects for the first time among national universities. They were developed using the superior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of CBNU to diversify textbooks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ensure students' subject choice and learning opportunities by a free publishing system are attained. In addition, CBNU has developed high school credit system programs and given 21 university-linked career development lectures 54 times in 15 high schools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As such, CBNU systematically supports the student-centered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horizontal diversification, takes the lead in playing a public role as a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and continues to contribute to fostering future talent based on innovation in high school education.

국가거점국립대의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의 발전방향

The Way Forward with the Development of a Digitally Integrated Education System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정용채
전북대학교 기획처장
Yong-chae Chung
Dean of Plann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19년 초부터 불거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 맹위를 떨치며 대학 캠퍼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캠퍼스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새내기들의 문제부터 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저하, 등록금 반환 요구 등 일련의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설립 이래로 정립되어 온 대학의 '캠퍼스'라는 공간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결국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현실 세계의 도래에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9개 국가거점국립대(KNU9)는 지난 2020년 3월까지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0년 2학기 수업부터 현재까지 정규 학기 중 총 89과목의 학점교류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거점국립대 학생들은 과거 개별 대학교끼리만 진행하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도 학생이 원하는 다른 대학의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4학기가 운영되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는 정규 교과목 중심으로만 학점교류가 진행되고 있어 학습 선택의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스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The COVID-19 virus, which emerged in the beginning of 2019, has been raging around the world and impacting university campuses. As non-face-to-face classes became common due to social distancing, a series of problems occurred, ranging from the problems of new students who had never stepped on the campus, to decreased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classes, and demands for tuition returns. Looking at this situation, the space concept of the university's campus -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establishment of Italy's Bologna University, the world's first university - is shaking, and in the end, universities cannot be an exception in the world of the virtual reality represented by the Metaverse. Fortunately, to overcome this situation, nin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9) completed the establishment of a credit exchange system in March 2020, and executed a total of 89 credit exchanges during the regular semester starting in fall 2020. Through this program, students of al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an take classes at other universities and have the credits be recognized without an exchange student program, which was conducted only by individual universities in the past. This is the first step of the "digital joint educa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lthough this program has been in operation for four semesters, credit exchange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MZ세대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큐레이션 및 메타버스 기능 등을 추가할지 검토해야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대학들의 독자적인 학사정보시스템과 학점교류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KNU9이 새로운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과 부합한다.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도 한참이 되었을 만큼 학령인구 급감의 쓰나미는 대학 사회를 덮쳐오고 있고,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역할 역시 지역과 분리되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산업생태계의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받고 있다. 이렇기 위해서는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학교 담장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방대학 특성화가 절실한 이유다. 지리적·문화적·산업적 어떤 이유에서든 각자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분야를 대신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방 특성화가 실현된다면 그토록 견고했던 대학 서열화를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둘째, 무한한 연계 가능성이다. KNU9 통합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KNU9의 정규 교과목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비교적 학사시스템이 비슷한 국가거점국립대끼리의 연합 교육체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국립대 전체 및 공립대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고 또 사립대 연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살펴보면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에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문대까지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개별 사업을 통해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연합교육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의 일환이다.

인류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면서 진보를 이루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대학이 처한 위기에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공유’의 개념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결함과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제는 대학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공유해 나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당장은 KNU9을 넘어 서울대까지 포함한 ‘KNU10 포털형 통합 LMS’를 새로 구축하고 정규 교과목뿐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공동으로 활용해 나가야한다. 뿐만 아니라, 최신 온라인 교육트렌드를 반영하여 팀 티칭, 멘토링, 진로설계 등 원격강의 외 특화 서비스를 지원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블록체인의 기반 인증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그림 ‘신 학사교류 아키텍처 구축’ 참조). 이렇듯 KNU10 디지털 교육 연합체계가 성공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과

has only been conducted in major subjects, lacking the diversity of learning choices. In addition, in terms of system function, it is difficult to satisfy the expectation of the MZ generation who skillfully handle other social media. This is a point t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regards to curating metaverse functions. Finally, some point out that it is somewhat inconvenient because the standardization work of the independent academic information systems and credit exchange system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is still unde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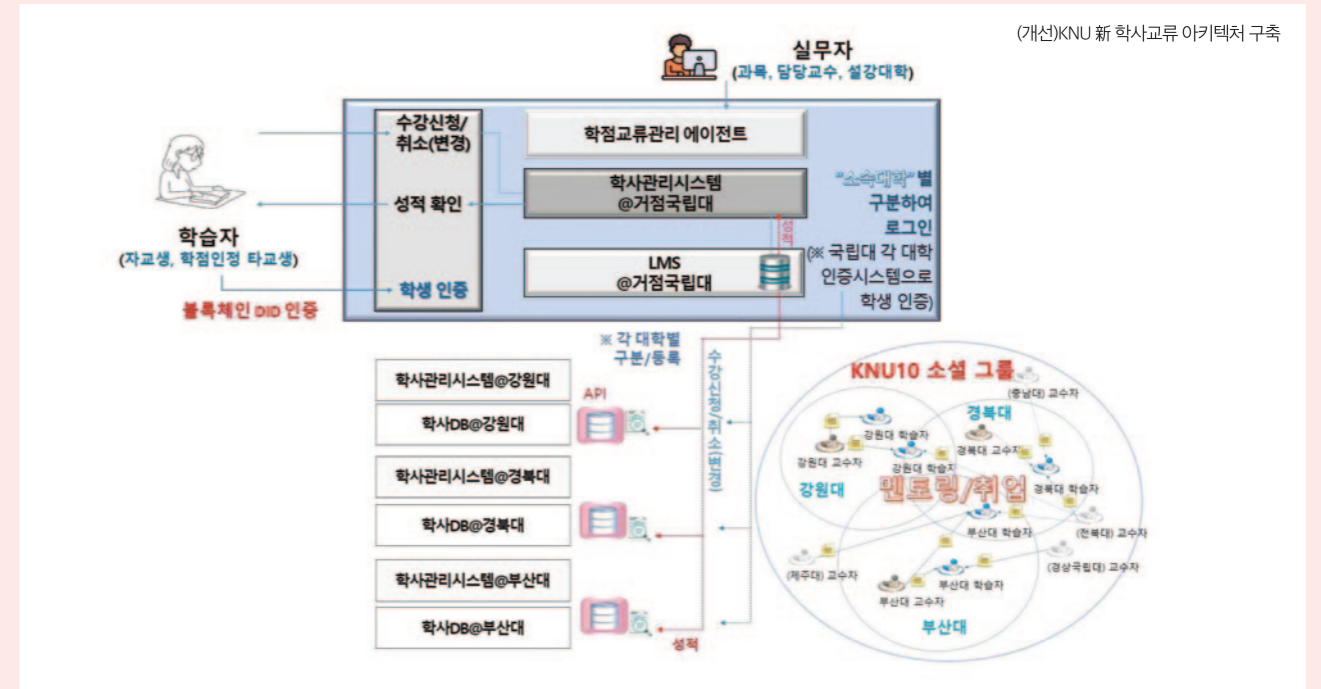
Despite these problems, it is clear that KNU9 should continue to move toward strengthening the new digitally integrated education system.

First, it is consistent with the strategy for specializing local universities. The phrase ‘The Crisis of the Universities is the Crisis of the Region’ is not new. A sharp drop in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hit universities, and there is a consensus that this is not just a crisis of universities. Therefore, there is demand that the role of univers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y delivering knowledge separately from the region, but to serving as an innovative entity of the local industrial ecosystem. In order to do this, research conducted in schools mus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beyond the school fence, and the curriculum conducted in schools must be able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that help companies and the local economy.

This is why specialization of local universities is needed urgently. For geographical, cultural, and industrial reasons, each university must have competitive fields, and each university should focus on that field, while other universities focus on their competitive areas. Through this approach, each university will be able to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and take some of the financial burden off of operating various curricula. In addition, if local characterization is realized, it can be a catalyst to breaking the rankings of universities that were so formidable.

Second, there is an infinite possibility of linkage. The KNU9 integrated learning management system is currently operating with only for major subjects covered among KNU9 member universities. How would this change going forward? If a joint educ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with relatively similar academic systems is successfully established, it will be possible to connect it with all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even private universities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I think it is possible to link to a variety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currently underway. The recent “Digital new technology talent training innovation sharing university” project, does not categorize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also includes junior colleges for participation. Establishing a shared university system through these funding projects can also be a part of the way to strengthen the joint education system.

Whenever there was a crisis in the past, mankind made progress by overcoming it. A solution is also needed to the crisi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represented by the current decrease of school-age population. In this era when the concept of sharing continues to combine and develop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how universities will share in their own way.



사립대학 간 확대를 모색할 수 있고 다른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를 통해 학생들은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나 공동학위제 시행을 통해 각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단순히 학사적인 교류가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개별 국가거점국립대가 교류하고 있는 해외대학과의 교류로 확대한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글로벌 모빌리티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KNU10 디지털 연합 교육체계’를 통해 대학을 특성화 시키고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이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말이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말로 변할 날을 기대해본다.

For no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KNU10 portal-type integrated LMS that includ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eyond KNU9 and utilizes content produced in various projects, extending further from major courses. In addition, a blockchain-based accredit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increase student convenience by enabling support and use of specialized services other than remote lectures such as team teaching, mentoring, and career design by reflecting the latest online education trends. (See Figure “Building a New Academic Exchange Architecture”) If the KNU10 digital integrated education system succeeds, it can seek expans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be a good model to link with other projects.

Through the new “digital joint education system,” students can overcome physical and temporal limitations, receive competitive high-quality education for each university effectively through multiple degrees or joint degrees, and expand to physical exchanges, not just academic exchanges. In addition, if individu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expand to exchange with their overseas partner universities, it can lead to maximizing global mobility for Korean students.

The new government says it will spare no support for local universities. Strategies are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with limited resources. If universities are specialized through the “KNU10 Digital Integrated Education System” and local specialized industrial fields are fostered and strategically invested here, I think it will play a big role in overcoming the local crisis.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the word wherein the crisis of universities is a regional crisis turns into the word wherein regional innovation has been achieved through university innovation.

‘회복’을 넘어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 팬데믹 이후, 균형발전시대를 위한 정부와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

For a “Healthy” Korea, Beyond Its Recovery: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in the era of balanced development after the pandemic

이른바 ‘회복’이 각계의 화두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팬데믹을 극복하고, 과거의 일상과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각 분야의 열망과 관심이 이에 녹아있다. 고등교육 분야도 다르지 않다. 학습결손과 격차를 해소하고, 실학·실습 등 대면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의 기회를 다시금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든 교육 주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인재 양성의 사명을 짊어진 교육 당국과 국가거점국립대의 목표는, 이전의 교육여건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건강하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COVID-19 팬데믹은 대학가의 큰 위기인 한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자산 확보의 기회이기도 했다. 온라인 기술의 도입과 통신 인프라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의 체득 등 소통과 학습에 있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자산들이 팬데믹 기간 축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은 한국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교육 역량의 수도권 집중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온 논리인 ‘산-학 간 집적의 중요성’이 대용량 통신기술과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비대면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대학도 물리적 한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산업과 연계·협력하며 경

쟁력을 신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여건 마련을 계기로 지역대학의 약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거점국립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표제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지원과 분야별 인재양성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기반이 취약한 지역대학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없이 지원한다”는 형평의 논리가, 장기간의 지역 간 격차로 고착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거점국립대학들의 혁신 노력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화 전략 수립에 앞장서야 하며, 대학의 강점을 발굴하고 시장 수요와 연계하는 선도적 네트워킹 역량과 리더십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한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거점국립대학의 주요한 역할이다.

‘사백사병(四百四病)’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오장(五臟)에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을 칭하는 고어(古語)로, 인체의 모든 장기가 조화롭게 발달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장기의 고른 발달이 필요하듯 한 국가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정부와 거점국립대학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이다.

“Recovery” has become a keyword in various fields. It stands for the desire and concern of each field to overcome the pandemic that has placed a profound impact on society for more than two years and to restore daily life and vitality.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shares this concern. All ent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re working together to alleviate the aftermath of the deficits and gaps in learning and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growth through face-to-face activities such as experiments and practice. However, the goal of the educational authorities and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hich bear the mission of nurturing the country's future talent, should be focused on making Korea a sounder country, rather than merely restoring the previous conditions surrounding education.

While the COVID-19 pandemic brought on a major crisis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it was also an opportunity to secure new assets for a leap forward. Various assets that can overcome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in communication and learning, such as the introduction of online technology,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acquisition of digital literacy, were able to accumulate during the pandemic. These assets have a special position in that they provide a clue to overcoming the “centraliz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s been pointed out as a chronic problem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the non-face-to-face era represented by large-capacit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metaverse, the logic that has supported the argument that the concentration of educational capab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is inevitable is no longer as persuasive as before. Now, the conditions have been prepared for local universities to step out of their physical limits and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by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industries. In order to realize the advancement of regional universities using these conditions as an opportunity,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look forward are required.

First, governmental investment in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audacious. In order to prevent the headline “Now Is the Era of Local Universities,” one of the five national task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education sector, from becoming phrase spoken in vain,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universities in the non-capital areas should be given to financial support for universities and programs for fostering specialists in each field, considering that they have been in relatively adverse condi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ogic of equity in “supporting the metropolitan areas and other regions without distinction” can act as the logic to

justify discrimination in the “slanted playground” that has been maintained by long-term regional disparities.

In addition, innovation efforts of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must also be accompanied. Based o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various resources in the region, they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regional specialization strategies, and also have leadership networking capabilities to discover the strengths of universities and link them with market demands. Also, it is a major role of the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help the governmental aid for local universities to secure social legitimacy and support through innov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re is a saying, “Four hundred and four diseases (四百四病).” It is an ancient term (古語) referring to a number of diseases that occur in the five major organs (五臟) of the human body, which means healthy conditions can be maintained by harmonized the development of all organs. Just as the overall development of organs is necessary for a healthy body,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on-capital regions is inevitably required for the sound and sustainable growth of a country. The government and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hereby hold a solemn responsibility to lead regional development.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Jung Sung-taek
Presi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NU10 News

3년만에 열린 제전으로 '다시 하나 된 거점국립대'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ecoming One Again Through the First Sports Festival in Three Years

10개 국가거점국립대가 다시 하나로 뭉쳤다. 지난 6월 2일과 3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2022 국가거점국립대 제전'을 통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행사가 취소된 지 3년 만에 열려 의미를 더했다. 주최 대학인 강원대를 비롯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에서 총장과 교직원, 학생 선수단 650여명이 참가했다.

6월 2일 강원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스배구 △여자발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사격 △계주 등 6개 종목을 진행했으며, 특히, 사격 종목 경기에서는 강원도 춘천 출신의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가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대학별 장기자랑, 육군2군단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공연, 불꽃



놀이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진행됐다.

올해 제전에서는 서울대가 스배드민턴 △계주 2개 종목, 전북대가 스배구 △테니스 2개 종목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발야구 종목은 강원대, △사격 종목은 경상국립대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는 2일 오후 강원대 미래도서관서 10개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2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합 교육체계 강화를 위한 포털형 통합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거점국립대의 과학대학원 설치 등 거점국립대의 발전과 고등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영 총장은 "이번 행사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거점국립대들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국가거점국립대 제전은 충남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Te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me together again through the "2022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Sports Festival" held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Campus on June 2 and 3. The event was more meaningful as it was held three years after the 2020 and 2021 even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pandemic. The festival was attended by about 650 including presidents, faculty, and students from 10 universities, includ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hos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tarting with the opening ceremony held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tadium on June 2, six events were held for two days, including volleyball, women's kickball, badminton, tennis, shooting and relay. Mr. Jin Jong-oh,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and an Olympic shooting gold medalist originally from Chuncheon, Gangwon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hooting contest, drawing attention. In addition, the event was held as a festival of harmony and communication among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with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performances, ta-

ent shows by universities, taekwondo demonstrations by soldiers of the Army 2nd Corps, and fireworks.

In this year's festival, Seoul National University won two events: badminton and the relay rac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on two events: volleyball and tenn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on the women's kickball event,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on shooting.

In addition, the President's Council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airman Kim Dong-won, President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2nd Regular Meeting in 2022" at Mirae Library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discussed major issue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a portal-type Learning Management System to strengthen the joint educ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President Kim Heon-young said, "I hope this event will be a valuable time for members of each university to share friendships and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harmony through sports and cultural events," adding, "I look forward to creating an opportunity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develop together through closer cooperation."

Meanwhile, next year's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sports festival will be held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충북대 창업동아리 G.A.가 함께걸어요!

Sustainable Future walks with CBNU Startup ClubTEAM G.A.!



어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며 "조금 미숙할 순 있겠지만 우리 모두 같이 환경을 위해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모인 만큼 다회용품의 사용 확산과 새롭게 진행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도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A 팀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버려지는 PP소재인 페트병의 병뚜껑을 모아서 분쇄한 뒤 금형에 사출해 키링이나 카라비너를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제품 개발, 앱개발 등 아이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cting president, Jeong, Eui-bae) has been working hard for the sustainable earth. The start-up club, TEAM G.A. (Good Attitude), which means to have a good attitude to replace disposable products, focuses on disposable products whose use has been exploded since COVID-19.

They aim at making CBNU "No-Plastic Zone" for Green Campus and are taking the lead in a virtuous cycle by developing a reusable cup of Woowangi, a CBNU character, and providing them to 'CooBNU,' a CBNU brand cafe, for those who agree on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ut don't know other options to disposable products.

For about a month, about 300 cups were consumed there. Although the recovery rate is not that high, it is the starting point of establishing alternative services for disposable products and im-

proving awareness of the spread of using multi-use products. In addition, cleaning and inspection processes were also systematized for safe use of multi-use cups.

This challenge could be possible by a great deal of support from CBNU. Thanks to the support, they could go through various training and mentoring programs for start-up clubs, so that they could build up the item step by step.

Kim Min-hyeok, a leader of Team G.A., said, "We will continue to do various activities to create a culture of using multi-use products," adding, "It may be a little immature, but we will work hard on the spread of multi-use products and a new upcycling project since we gathered together in the hope that all the people can change for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as an upcycling project, the team is also working on making keyrings or karabiners with the caps of plastic bottles, which are PP materials discarded. They collect the bottle caps and grind and inject them into molds to make upcycling products. In addition, based on much support from CBNU, they will make efforts to build an item infrastructure by developing prototypes, applications, etc.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정의배)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가장 좋은 태도를 갖자(Good Attitude)는 뜻을 가진 창업동아리 G.A 팀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회용품에 집중했다.

이들은 그린캠퍼스 충북대를 위해 노플라스틱 존을 목표로 잡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회용품의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충북대의 캐릭터 우왕이를 넣은 리유저블컵을 개발, 학내 카페 브랜드인 '쿠비앤유'에 리유저블컵을 제공해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운영해온 결과 약 300개의 컵이 소비됐다.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일회용품의 대체 서비스 구축과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의 인식 개선이라는 출발점에 선 것이다. 또한 다회용컵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척공정과 검수과정도 체계화했다.

이러한 도전에는 충북대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됐다. 창업동아리와 창업클럽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 과정을 거쳤고, 아이템의 단계적 빌드업이 가능했다.

김민혁 G.A 팀 대표는 "앞으로 다회용품을 만들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기초과학실험, 충북대에선 VR로 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where, Basic Science Experiments are Possible with VR at CBNU!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정의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기초과학 실험 콘텐츠'를 제작해 화제다.

미래 교육의 핵심기술을 교육하고자 7종의 기초과학 콘텐츠를 개발, 충북Pro메이커센터 내에 가상현실(VR) 실험교육 플레이 룸을 구축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현실 교육은 낮은 몰입감과 간접 실험교육을 보완할 수 있으며, 체험자의 만족도가 높아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기초과학 실험 가상현실(VR) 콘텐츠는 △세균 관찰을 위한 그람염색(미생물학과) △편광현미경을 통해 보는 암석의 미시세계(지구환경과학과) △소형 망원경의 구조 및 천체관측(천문우주학과)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한 시료 이미징(물리학과) △PCR을 통한 DNA 증폭 및 전기영동 확인(생물학과) △현미경의 종류와 식물구조관찰(생물학과) △척추동물의 해부 및 조직학적 구조관찰(생물학과) 등 7개다. 조성진 자연과학대학 부학장은 "미래 지식정보



The seven virtual reality (VR) contents of basic science experiments are as follows: △ Gram method for bacteria observation (Dept. of Microbiology) △ microworld of rocks looking through a polarizing microscope (Dept.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 the structure of a small telescope and astronomical observation (Dept. of Astronomy & Space Science) specimen imaging using 'an atomic force microscope' (Dept. of Physics) △ DNA amplification and electrophoresis identification by PCR (Dept. of Biology) △ the types of microscopes and plant structure observation (Dept. of Biology) △ dissection and histologic structure of vertebrates (Dept of Biology).

Cho Sung-jin, vice dean of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said, "We have paved the way to introduce core technologies of the futur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o the basic science education field. And at the same time, we will develop more virtual reality contents and expand the foundation of a metaverse platform in connec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3D printing, big data technology, etc., which have been led by CBNU, to promote basic science education."

화사회의 핵심기술을 기초과학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동시에 기초과학 교육의 강화를 위해 충북대가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기술 등과 연계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cting president Jeong, Eui-bae) produced 'the basic science experiment contents' using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a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teach core technologies of future education, seven basic science contents were developed, and a virtual reality (VR) experimental education playroom was established in the Chungbuk ProMaker Center for students to use. Virtual reality education can complement low immersion and indirect experimental education, and make efficient education possible due to high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강원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행사」 개최

「Kangwon National University 75th Anniversary Event」

강원대학교는 6월 14일(화) 「강원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교기념식에는 김현영 총장을 비롯해 박용수·신승호 전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기관·단체장, 수상자 및 재학생,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해진 국회의원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허영·유상범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강원대 개교 7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1부 행사는 김현영 총장 기념사, 내빈 축사, 자랑스러운 강대인상 시상식, 개교 75주년 대학 발전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자랑스러운 강대인상' 부문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AMP 백령과정 45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수학교육과 70학번), 김경수 호반의료재단 이사장(통계학과 79학번), 정연기 농촌사회교육원 동문회장(농촌사회교육원 농업과 23기), 김도형 경찰청 치안감(행정학과 85학번)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교 75주년 기념 대학발전 유공」 부문에는 한기호·이철규·허영 국회의원,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홍성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안순헌 강원도 기획재정협력관, 원홍식 강원도 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 방역 유공자' 부문에는 박한서 학생과 조교가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KNU 미래도서관 개관 및 평생교육원 개원식」이 진행됐다. 'KNU 미래도서관'은 춘천캠퍼스 동문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2,202㎡(건축면적 2,885㎡) 규모로, 총 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됐으며, 자료열람실과 컨퍼런스홀, 디지털큐브, 북카페 등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됐다. '평생교육원'은 춘천캠퍼스 동문에 지상 3층, 연면적 2,977㎡(건축면적 1,015㎡) 규모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GX룸과 댄스실, 국악실, 미술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부 행사에서는 「강원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하모니 타워(Harmony Tower)」 제막식을 비롯해 축하 무용공연이 펼쳐졌다. '하모니 타워'는 넓이 6m, 높이 14m 규모로, '實事求是

(실사구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강원대의 비상(飛上)과 번영을 조형화했으며, 중앙에 위치한 3개의 팽이는 대학의 3대 주체(학생-교수-직원), 대학의 3대 기능(교육-연구-봉사), 강원대 3개 캠퍼스(춘천-삼척-도계)를 상징하고 있다.

김현영 총장은 "강원대는 1947년 춘천농업대학으로 첫발을 댄 이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앞으로도 강원대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더욱 큰 도약의 성과들로 채울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75th Anniversary Event」 on June 14th (Tuesday).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approximately 200 people including university officials President Heon Young Kim, former presidents Dr. Park YongSoo and Dr. Shin Seungho along with Kim Jin-tae Gangwon-do Governor-elect, Shin Kyung-ho,

Gangwon-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elect, Dong-han Yuk, mayor of Chuncheon-elect, Myung-Jung Kim, Deputy Governor of Economy in Gangwon-do Province and heads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ward winners, current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Hae-jin Cho,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Kwon Seong-dong, floor leader of the People's Power Party, Han Ki-ho, secretary general of the People's Power Party, and Chul Gyu Lee-Heo Young, and Yoo Sang-beom,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elebrated the 75th Anniversary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y sending congratulatory remarks video.

The first part of the event included a commemorative speech by President Heon Young Kim, congratulatory remarks from guests, an award ceremony for an Honorary KNU member, and appreciation plaque for University Development Commemoration of the 75th Anniversary.

In the 'Honorary KNU member' category, Kim Jin-tae, Gangwon Governor-elect (45th AMP Baekryeong Course) Shin Kyung-ho, Gangwon-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elect (School of Mathematics Class of 70), Kyungsoo Kim, Chairman of the Hoban Medical Foundation (School of Statistics, Class of 79), Yeongi Jeong, chairman of the Schoo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alumni association (23rd Course of Schoo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Kim Do-hyeong,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of the Police Department (Public Administration, Class of 85) received the award.

In the category of 'University Develop-

ment Contribution in Commemoration of the 75th Anniversary', National Assembly members Han Ki-ho-Chul Gyu Lee-Heo Young, Myung-Jung Kim, Deputy Governor of Economy in Gangwon-do, Province, Kim Heung-seong, President Gangwon Inform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Ahn Soon-heon, Gangwon-do Planning and Financial Cooperation Officer, Won Hong-shik, Head of Gangwon-do Jobs Policy Division received the award for their honorable contribution. In the 'COVID-19 Prevention Contributor' sector, Hanseo Park, teaching assistant, received a plaque of appreciation and a plaque of merit, respectively.

Additionally, KNU also held the 「KNU Future Library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 Opening Ceremony」. The 'KNU Future Library' is located at the east gate of Chuncheon Campus with 5 stories above ground and 1 story below ground. The total floor area is 12,202㎡ (building area: 2,885㎡) and the total project cost was approximately 23 billion won. The library includes spaces such as a reading room, conference hall, digital cube, book cafe to invigorate communication, culture and art among university members as well as local residents.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is three floors above ground with a total floor area of 2,977㎡ (building area: 1,015 m²) located at the east gate of the Chuncheon campus. The project cost of the building was approximately 7 billion won, and is equipped with facilities such as a GX room, a dance room, a traditional music room, and an art room.

In the second part of the event, a celebratory dance performance was held

along with 「The unveiling ceremony of the 'Harmony Tower', a symbolic sculpture commemorating the 75th anniversary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rmony Tower' is 6m wide and 14m high, modeling the rise and prosperity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aping into a world-class university based on the founding philosophy of '實事求是 (Seeking Knowledge based on truth)'. The three tops located in the center symbolize the three major subjects of the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the three major function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service)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three campuses (Chuncheon-Samcheok-Dogye).

President Heon Young Kim stated, "Since its first step as Kangwon Provincial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ble to grow remarkably, based on the spirit of 'Seeking Knowledge based on truth' despite numerous adversities. We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send unwavering support and interest so th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an fill its new 100-year history with greater achievements to leap in to a better future."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김대현 교수팀, 세계 최초로 신소재 기반의 반도체 소자 개발 전자이동도 인듐갈륨비소 기반의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 개발 세계 3대 반도체 학술대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공개

World's First New Material-Based Semiconductor Device Developed by Professor Daehyun Kim's Team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multi-bridged channel transistors based on high electron mobility indium gallium arsenide was presented at the VLSI Symposium, the worlds third largest semiconductor conference.



전자공학부 김대현 교수
Professor Daehyun Kim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김대현 교수팀이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고전자이동도 인듐갈륨비소 기반의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multi-bridge channel field-effect-transistor, mbcfet) 전자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실리콘 기반이 아닌 신소재인 인듐갈륨비소 기반의 반도체 소자 개발로, 국내 실리콘 기반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6월 16일(미국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VLSI 심포지엄(symposium on vlsi technology & circuits)'에서 공개됐다. VLSI 학회는 세계 3대 반도체 학회 중 하나로, 매년 미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는 핀펫(fin field-effect-transistor, finfet)의 뒤를 이을 차세대 트랜지스터 소자 구조로 각광받고 있다. 여러 층의 채널이 수직방향으로 적층된 3차원 형태의 소자로, 트랜지스터의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삼성전자, TSMC, IBM, 인텔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수 국내 기술로 인듐갈륨비소 기반의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 개발했다. 연구팀은 실제 제품에 적용할 경우 기존 실리콘 소자 대비 최소 5배 빠른 속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구조와 신소재를 도입한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 소자가 실제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관련된 화합물 반도체 일괄 공정을 100% 국내 순수 기술로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에서 얻은 재성장 기반의 집적화 공정 기술은 현재 (썬큐에스아이와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소자 개발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 전자에서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Professor Daehyun Kims team at the KNU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has developed the worlds first Multi-Bridge Channel Field-Effect-Transistor (MBCFET) based on the next generation of semiconductor materials using high electron mobility indium gallium arsenide. Developing semiconductor devices based on the new material indium gallium arsenide, rather than the currently used sili-

con, is expected to provide new options for future technologies for Samsung and SK Hynix, the domestic silicon-based semiconductor giants.

The research results were presented on June 16, 2022, at the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 Circuits held in Honolulu, Hawaii, USA. The VLSI Symposium is one of the three largest global semiconductor societies, and it holds symposiu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ternately every year.

The Multi-Bridge Channel field-effect-transistor is becoming popular as a next-generation transistor device structure that will follow fin field-effect-transistors (Fin-FETs). The transistor is a three-dimensional element in which multiple channel s are stacked vertically, thereby improving its performance and efficiency. However, due to the high technical difficulty required to implement such complex structures, global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TSMC, IBM, and Intel have primarily led the research efforts on multi-channel transistors.

In collaboration with researchers from both QSI (Quantum Semiconductor International) Corp., a medium-siz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and KANC (Korea Advanced Nano Fab Center), Professor Daehyun Kims team developed the worlds first Multi-Bridge Channel Field-Ef-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knuofficial1946



경북대, '지역 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 선정 KNU Selected for "Regional Intelligent InnovationTalent Cultivation" Project

경북대학교와 대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지능화혁신인재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기업 재직자를 지능화 혁신산업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목표다. ICT(정보통신기술)융합연구센터를 경북대에 설치하고, 다양한 지역기업과 연계해 석사과정 학생을 선발, ICT 융합 특화 교육 및 기업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 data), 인공지능 SW(기계학습, 알고리즘), 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지능화 기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오는 2029년까지 총 180억 원(국비 150억 원, 시비 15억 원, 대학 15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기업 재직자 대상 ICT융합전공 석사 학위과정에 매년 40명을 모집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금의 80~90%를 지원한다. 우수 학생연구원에게는 해외 단기 연구프로그램(2주과정)도 제공한다. ICT융합 특화 단기특강, 산업체 특강, 참여기업 프로젝트 및 산학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지역기업에 직접 필요한 분야의 연구와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Daegu City were selected for the Regional Intelligent Innovation Talent Cultivation project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goal of the Regional Intelligent Innovation Talent Cultivation project is to cultivate local business employees into a top-level workforce in the intelligent innovation industry. Th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vergence Research Center will be installed with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in coordination with various local companies it

will select masters degree students to provide ICT convergence-specialized and company-specific education. The education will focus on intelligent technologies such as networks (IoT, 5G), data (cloud, big data), AI softwar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dvanced computing, and cyber security, etc.

A total of 18 billion KRW (15 billion from the government, 1.5 billion from municipal expenses, and 1.5 billion from universities) will be invested through 2029. A total of 40 students will be recruited every year for the masters degree program in ICT convergence for local company employees, with 80~90% of the graduate school tuition being provided only to those currently employed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 short-term overseas training program (two-week course) will also be provided to outstanding student researchers. The plan also includes programs to support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reas directly needed by local companies, including short-term special lectures specializing in ICT convergence, special lectures by industry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company projects, and industry-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asks.



미래를 개척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 '식물 생체리듬 연구센터' 개소 "생체리듬 신기술 기반 유용 생명자원 개발,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pens "Plant Biological Rhythm Research Center" to develop useful life resources based on new biorhythm technology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bio industry

경상국립대학교는 6월 27일 BNIT R&D센터에서 '식물 생체리듬 연구센터'(PBRRC·센터장 김외연 환경생명화학학과 교수)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교내 구성원, 경상남도 서부본부장,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진주시) 관계자, 지자체 연구소, 지역 바이오기업 관계자, 식물 생체리듬 연구센터의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식물 생체리듬 연구센터'는 2022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이학분야 선도연구센터사업(SRC; Science Research Center)에 신규 선정되었다. 센터는 6월 1일부터 2029년 2월까지 7년간 116억 500만 원(국비, 경상국립대, 경남도, 진주시)을 지원받는다.

'식물 생체리듬 연구센터'는 생체리듬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식물 시스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체시계 분야에서 제시하는 5대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여 식물자원 기반 산업 분야로 기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능성 고부가가치 식물 형질을 개발하여 농생명 산업으로 기술을 확산시키게 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세계 식물 생명과학 분야 Top 10 연구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을 센터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식물 생명자원의 경제성 제고 및 신기술 기반 바이오산업으로의 기술적 확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우수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opened a "Plant Biological Rhythm Research Center (PBRRC, Director Kim Woe-yeon, Professor at Department of Applied Life Chemistry)" at Bio·Nano·Information Technology (BNIT) R&D Center on June 27.

The ope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around 100 participants, including GNU President Soon-Ki Kwon, faculty and staff, the Director of Western Gyeongnam Region Headquarters, officials from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do and Jinju-si), local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officials from regional bio companies, and collaborative researchers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at PBRRC.

PBRRC was newly selected for the Science Research Center (SRC) in May 2022,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will receive 8.8 million USD(including government funds, Gyeongsangnam-do, and Jinju-si) for seven years, from June 1, 2022 to February 2029.

The ultimate goal of PBRRC is to develop an optimization technique for plant systems by researching the interaction between bio-rhythms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ly, the center plans to expand the technology to the plant resource-based industry by resolving the five scientific challenges presented in the field of the biological clock. Furthermore, it will diffuse the technology to agriculture and life industries by developing functional high value-added plant traits. PBRRC provided its vision to become a top 10 research group in the world's plant science field.

It will enhanc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plant life resources and lead to technological expansion into the bio industry based on new technology. Moreover, it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local bio industry by nurturing outstanding young local researchers.

A University that pioneers the future and Shares valu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gnu.ac.kr SNS • www.facebook.com/smartGNU • blog.naver.com/gnujinju



경상국립대, 정영수 CJ글로벌 경영고문·강세민 경원여객 대표이사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nfers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to Jung Young-Soo, Global Business Advisor of CJ Group, and Gang Se-Min, CEO of Gyeongwon Transportation Company

경상국립대학교는 5월 20일 BNIT R&D센터에서 정영수 CJ그룹 글로벌경영고문과 강세민 경원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이자 경상국립대 발전후원회장에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정영수 고문은 진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1972년 (주)한국마벨에 입사하여 홍콩지점 수출 차장, 싱가포르법인 법인장으로 글로벌 경영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1984년 (주)진맥스 대표이사 회장, 2000년 (주)한국센트 제임스 대표이사 회장을 거쳐 2009년부터 CJ그룹 글로벌경영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인회장, 아태지역 한인총연합회장, 한국상공회의소(싱가포르) 회장,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재외 국민의 자립을 돕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독려했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장학사업을 펼치며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차세대 경제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

강세민 대표는 경상국립대 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78년부터 경원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조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발전협의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의 문화, 역사, 경제, 산업, 교육, 체육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강세민 대표는 경상국립대 발전후원회장으로 공기업·중소기업과 대학 측의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대학생·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여 대학 발전에 공헌했다. 또 경상국립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창립 회장으로 대학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기여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at BNIT R&D Center on May 20, con-

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to CJ Group's Global Business Advisor Jung Young-Soo and Gang Se-Min, CEO of Gyeongwon Transportation Company and Chairperson of Supporter's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GNU.

Mr. Jung was born in Jinju, Gyeongsangnam-do, graduated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oined Korea MARVEL in 1972, and was active at the forefront of global management as the deputy head of export for the Hong Kong branch and head of the Singapore corporation. He served as CEO of Jinmax Co., Ltd. in 1984, Chairman and CEO of Saint James in 2000, and Global Management Advisor of CJ Group since 2009.

He held various posts, including Chairperson of Korea Association in Singapore, President of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President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Singapore, and Director of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to help overseas Koreans become independent and build self-confidence as a Korean. He

also conducted scholarship project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spread Korean culture to the locals and contribute to finding next-generation entrepreneurs.

Meanwhile, CEO Gang Se-Min completed a master's course in history. He has been the CEO of Gyeongwon Transportation Company since 1978. Mr. Gang is also a major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ulture, history, economy, industry, education, and sports by serving as a member of the Family Mediation Committee at the Changwon District Court Jinju Branch and Vice President of the Gye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Mr. Gang, as the Chairperson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GNU, made a huge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by invigorating the recruitment of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by signing agreements between public corporation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university.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부산대학교



부산대,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회의 첫 참가 세계 13개 명문대와 학생교류·공동연구 추진 '성과'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ticipates in the first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 'Results' of promoting student exchange and joint research with 13 prestigious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부산대학교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열린 「제26회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총장연례회의」에 처음 참가했다. 지난해 서울대, POSTECH, KAIST,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국내 6 번째로 APRU 정회원에 가입한 이후 첫 참석이다. 부산대는 이번 총장연례회의 행사에서 APRU 의장인 미국 UCLA 진 D. 블록 총장 등 전 세계 60 개 회원대학 총장과 연구진 등 150여 명과 함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논의하고, 참여대학 간 국제 교육 및 공동연구 등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개최했다.

특히, 부산대는 이번 APRU 총장연례회의에서 회원대학인 미국 UC 리버사이드, 싱가포르의 난양이공대 및 싱가포르국립대, 일본 큐슈대, 홍콩대와 홍콩중문대·홍콩과학기술대 등 13개 해외 명문대학과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에 대한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한편, APRU는 회원대학 총장 간 공동성명서 <Reconnecting in a Sustainable World(지속가능

한 세상으로 재연결)>를 함께 채택하고, 글로벌 주요 대학들이 힘을 합쳐 세계 기후변화, 코로나 19 등 전염병, 재난, 인종차별과 불평등 등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기로 했다.

For the first time,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26th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 Presidents' Annual Meeting" held a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for four days, from July 6th to 9th. It became the 6th APRU member in Korea, and was the first time si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CH, KAIST, Yonsei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joined last year.

Pusan National University discussed the theme of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with 150 people, including presidents and researchers of 60 member universities worldwide, including UCLA President Jean D. Bullock. He is the chairperson of the APRU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resident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Consultations were held to

strengthen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joint research.

In particular, Pusan National University achieved outstanding results at the APRU president's annual meeting by agreeing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tudent exchanges and joint research with 13 prestigious overseas universities, including UC Riverside in the U.S., Nanyang National University and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in Singapore, Kyushu University in Japan, and the University of Hong Kong.

Meanwhile, APRU adopted the joint statement <Reconnecting in a Sustainable World> among the presidents of member universities, and significant global universities joined forces to prevent global climate change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disasters, and racial discrimination. They contributed to resolving common human problems, such as inequality.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총장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입 연설을 하고 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Cha, Jeong In attends the Annual Meeting of the Presidents of the APRU and gives a speech on membership.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v>



의생명과학 연구 선도할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초저온 전자현미경(Cryo-EM) 분석센터」 개소

Cryo-EM Analysis Center open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s Yangsan Campus, to conduct research on medical life sciences



「초저온 전자현미경(Cryo-EM) 분석센터」 개소식 모습
Opening ceremony of Cryo-EM Analysis Center

부산대학교는 코로나·두창바이러스 등 다양한 의생명과학 연구를 선도할 「초저온 전자현미경(Cryo-EM, 크라이오 이엠) 분석센터」를 구축해 8월 4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의학생명융합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부산대 「Cryo-EM 분석센터」는 최첨단 300kV(킬로볼트) Cryo-TEM과 120(kV) Bio-TEM 장비 및 Cryo-FIB를 비롯한 보조 분석 장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전문 분석센터로, 시료 전처리, 관찰, 고해상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전산처리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Cryo-EM 기술을 활용한 전문 분석센터는 국내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기초과학연구원(IBS),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대는 이곳의 최첨단 연구장비 인프라를 통해 향후 생체 및 합성 물질의 구조분석 등으로 국내 공동연구는 물론 범국가적인 다학제 공동연구 수행과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해 의생명과학 분야의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e Cryo-EM Analysis Center, which will lead to various medical science research, such as COVID-19 and Smallpox Virus. It held an opening ceremony at the Advanced Life Convergence Cente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s Yangsan Campus on August 4th.

Pusan National University's Cryo-EM Analysis Center, which has a budget of more than 7 billion won, is a professional analysis center equipped with Korea's

best research infrastructure, including state-of-the-art, cutting-edge 300kV (kilovolt) Cryo-TEM and 120 (kV) Bio-TEM equipment, and auxiliary analysis equipment including the Cryo-FIB.

Specialized analysis centers using Cryo-EM technology are operated by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the Institute of Basic Science (IBS), Seoul National Universit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and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Through its state-of-the-art research equipment infrastru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expected to enhance it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medical science, by conducting joint research on biological and synthetic materials, and providing analysis support services.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세계 속 서울대

서울대학교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한 것으로, 세계 및 아시아 우수대학과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THE 어워즈 아시아 'Workplace of the Year' 부문에 선정되는 쾌거까지 이뤘다.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최초 20위권 진입

서울대가 지난 6월에 발표된 '2023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3)'에서 종합 29위에 오르며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는 매년 4개 분야 6개 지표를 평가한 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는 1,418개 세계대학의 순위를 발표했으며, 서울대는 세계 종합순위 29위로 지난해 대비 7계단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아시아권 대학 중에서는 7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계단이 상승된 것이다. 학계 평판도(98.6점)와 졸업생 평판도(97.8점)의 좋은 평가가 종합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문 분야별 평가 및 졸업생 취업률 성적도 우수

QS에서는 인문·예술,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경영 등 5개 대분야를 세분화해 51개 학문 분야별(Subject)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46개 학문 분야 중 20위 이내에는 스포츠관련학(13위), 재료과학(18위), 현대어학(19위), 사회정책·행정학(19위), 약학·약리학(20위)까지 총 5개가 진입해 지난해 3개에 비해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대는 QS에서 올해 최초로 실시한 우수대학 표창에서 취업능력 표창(QS Recognition of Employability) 부문도 수상했다.

2022년 THE 어워즈 아시아 'Workplace of the Year' 부문 수상

서울대가 대학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SNU 주니어보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THE 어워즈 아시아(THE Awards Asia 2022)'의 'Workplace of the Year' 부문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2019년부터 매년 아시아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운영 관련 10개 분야를 평가해 각 분야별 최우수 대학에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Workplace of the Year' 부문에서는 대학 직원 친화적 업무환경 및 직장문화 등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대학이 선정된다. 서울대 20~30대 직원들로 구성된 'SNU 주니어보드'는 다양한 대학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원 간 소통 활성화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4월에 출범한 SNU 주니어보드는 재직 10년 이내 MZ세대 직원들(15명)로, 조직문화 개선 9대 캠페인과 선·후배 직원 상호간 멘토 및 멘티로 소통하는 코멘토링(Co-Mentoring) 운영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snu.ac.kr SNS • [instagram.com/snu.official](https://www.instagram.com/snu.official) • [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https://www.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became the nation's first university to enter the top 30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chieving the highest ranking ever, SNU is now placed at the top of the list, along with the world's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t went one step further to achieve the feat of being selected as an awardee in the "Workplace of the Year" category at THE Awards Asia.

Becoming Korea's first university to advance to the top 30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SNU ranked 29th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3 published this past June, becoming the nation's first university to enter the top 30. Quacquarelli Symonds (QS) is a UK company that specializes in the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nd publishes world university rankings annually based on its assessment across six indicators in four categories. This year, it published the rankings of 1,418 universities throughout the world, and SNU rose seven notches from last year to be placed 29th, achieving the highest ranking so far. In Asia, SNU elevated three spots from a year ago to be ranked 7th.

In particular, academic reputation (98.6) and employer reputation (97.8) served as main contributors to a rise in the overall ranking.

Strong performance in QS rankings by subject and QS graduate employability rankings

QS subdivides the five main categories of Arts and Humaniti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Life Science and Medicine, Natur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Management into 51 individual sub-

jects and publishes its evaluation results. Among the 46 subjects, SNU ranked in the top 20 in five subjects: sports-related studies (13), materials science (18), modern linguistics (19),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19), and pharmacy and pharmacology (20), improving from three subjects that were in the top 20 last year. Furthermore, SNU was awarded "QS Recognition of Employability," one of the categories of "QS Recognition of Excellent University," which was launched this year

Awarded "Workplace of the Year" at THE Awards Asia

Recogniz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SNU Junior Board, promoted by the university for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Awards Asia 2022 selected SNU for the "Workplace of the Year" award. Since 2019, Times Higher Education (THE) has conducted an annual evaluation of Asian universities and awarded prizes to the best universities in ten institutional operation-related categories. The award of "Workplace of the Year" is presented to a university dedicated to creating an employee-friendly work environment and culture. The SNU Junior Board, consisting of university staff in their 20s and 30s, was greatly appreciated for its efforts to actively address various university issues and build a streamlined network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the employees. The SNU Junior Board, launched in April 2021, is composed of 15 MZ employees with less than 10 years of service. Some of their achievements merit praiseworthy attention, including nine campaigns waged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numerous innovative ideas such as co-mentoring, which invites juniors, seniors, and colleagues to work in partnerships to support and extend each other's development.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 전남대학교



Change N Uni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nu.ac.kr SNS • [instagram.com/chonnam_univ/](https://www.instagram.com/chonnam_univ/) • [youtube.com/yesCNU](https://www.youtube.com/yesCNU)



전남대학교 반도체·바이오·AI분야로 대학 경쟁력 한 단계 끌어올려

CNU Raises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to Next Level in the Fields of Semiconductors, Bio, and AI

반도체개발지능화사업단 개설, 반도체-AI 융합연구·교육

전남대는 반도체개발지능화사업단을 개설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시를 접목한 반도체 맞춤형 융합연구와 교육사업을 비롯해 전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지역 내 시 활용 기업에 재직 중인 산업체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바이오 R&D 성과창출 기반 조성

전남대는 2020년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혁신형 면역치료제 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까지 진행되는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은 항암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임상·중개연구 및 사업화를 포괄하는 전주기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최근 화산전남대 병원이 추진 중인 개방형 의료혁신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지역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AI(인공지능)분야시스템 구축 및 교육 활성화

전남대는 AI융합대학지원사업(AI+에너지 분야)을 통해 지역특화 분야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및 AI 원천기술 분야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동력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에서는 고성능 GPU서버, AI Vision&Voice 장비, 자율주행 실습장비 등 최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수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stablishment of Semiconductor Development Intelligence Project Group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Research in Semiconductor and AI Fields

CNU established the Semiconductor Development Intelligence Project Group to focus on fostering specialists in the semiconductor area, which is a fundamental technology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also focus on strengthen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llaboration with a group of industry experts working at semiconductor-related companies across the country and AI-affiliated companies in the region, as well as semiconductor-customized convergence research and education projects that incorporate AI technology.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Bio R&D

CNU was selected for the 2020 Im-

munotheapy Innovation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 and is taking the lead i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ve immunotherapeutic drugs. The Immunotherapy Innovation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 which will be conducted until 2024, aims to develop a full-cycled immunotherapy innovation platform encompassing the development of anti-cancer immunotherapy source technology, clinical and interventional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It is expected to form a central axis of the regional biomedical cluster, producing a synergistic effect with the Open Medical Innovation Center currently being promoted by Hwasun's CNU Hospital.

Establishment of Individual Field System and Activation of AI Technology Education

CNU is concentrating on nurturing the specialists necessary for regionally special-

ized fields such as automobiles, energy, healthcare, and AI source technology through the AI Convergence University Support Project (AI + Energy field). In particular, specialized education is provided on the development, production, use, and treatment of energy that combines power enginee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ddition, CNU'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has created a state-of-the-art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high-performance GPU servers, AI vision & voice equipment, and autonomous driving practice equipment to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ducation for professors and students.

전남대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입학과 동시에 100% 취업보장

CNU's Early Employment Contract Departments Guarantee Employment upon Admission

전남대학교는 고졸자의 진학 및 조기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 산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수캠퍼스에 기계IT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전자제어공학과 등 총 3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평가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수능최저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접에서는 기업과 공동면접을 진행해 입학단계에서 채용을 확정한다. 입학 후 1학년은 전공기초과정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직장인 신분으로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쌓으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 3년 과정을 마치면 공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졸업과 동시에 2년 경력을 보유하게 된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입학생은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2~3학년 등록금은 기업(25%)과 지자체(50%)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 총 136개이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기준 2.4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역 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CNU is operating three contract departments on its Yeosu Campus,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IT Convergence Engineering, the Department of Smart Convergence Process Engineering, and the Department of Smart Electrical Control Engineering in order to satisfy high school graduates' desire to start higher education and secur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s well as to nurture customized professionals for future industries.

CNU's Early Employment Contract Departments select all students through the general student records admission, which

entails document evaluation and interviews. The minimum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requirements do not apply. In particular, the early decision admission for those departments conducts a joint interview with the company to settle guaranteed employment guaranteed. After admission, students take basic course classes in a major in the first year, and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year, work as employees and build practical competencies in a company. Upon completion of the three-year course, a Bachelor of Engineering degree can be obtained while two years of work experience can be recognized upon graduation.

Students admitted to the Early Employment Contracts Departments receive full scholarships for their first-year tuition, and the second-and third-year tuition is supported by companies (25%) and local governments (50%). So far, a total of 136 companies have signed agreement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It recorded a competition ratio of 2.44: 1 from the early decision admission process of the 2022 academic year and is popular with students from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the region.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전북대학교, 구 정문 주변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reates 'Campus Innovation Park' near the old main gate

전북대학교가 21세기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ICT·BT·CT 등이 집적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캠퍼스 내에 조성한다. 대기업과 신생 스타트업, R&D센터,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전북형 창업허브를 만들어 지역발전의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5일 밝혔다. 전북대 구 정문 및 실내체육관 일대의 유휴부지 3만 6,580㎡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선도 앵커역할을 하게 될 네이버(헬스부문)·KT·하림·IMI 등 180여개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2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지난 달 선정됐다.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내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는 올해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전북대·창원대가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뽑혔다.

전북대는 구 정문 및 실내체육관 일대 부지 36,580㎡를 올해부터 2030년까지 3단계(1단계 25,516㎡, 2단계 3,537㎡, 3단계 7,527㎡)로 나눠 개발한다. 총사업비는 1,110억 원이 들 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착수하는 1단계 산학연 혁신허브(연면적 22,300㎡) 건립 사업에는 510억 원(국비 190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 LH 240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 오픈을 목표로 문화콘텐츠, ICT, 바이오 융복합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소,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마련한다.

1단계 사업은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주시 도시재

생뉴딜사업(I-TOWN)과 연계돼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동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25~27년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R&D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조성해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2030년에 마무리하는 3단계 사업은 ECO복합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시설을 갖춰 직원들을 위한 워라밸 타운을 건설한다.

전북대는 이달 중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2026년에는 관련 분야 기업들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현장 실사, 종합 평가 등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가 축적한 창업중심대학, LINC 3.0, SW중심대학 등 노하우와 교육·연구 인프라, 주변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등을 잘 결합해 전국 최고의 창업허브를 조성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대학발전의 선순화 구조,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ill create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on campus where ICT, BT, and CT, which are considered the growth engines of the 21st century, are integrated. It plans to create a Jeonbuk-type startup hub that combines large corporations, new start-ups, R&D centers, and support facilities, and nurture them as a platform for regional developm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nounced

on the 5th that it will invest 111 billion won in total project cost by 2030 to promote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The goal is to create a futuristic high-tech industrial complex on 36,580 square meters of idle land around Chonbuk National University's Gujeongmun Gate and Indoor Gymnasium. About 180 companies, including Naver (health sector), KT, Harim, and IMI, who will play the role of leading anchors, will participate together.

In this regar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last month for the '2022 Campus Innovation Park Competition Project' jointly conducted by three governme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venteen universities submitted proposals this year for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which aims to foster universities as bases for regional innovative growth.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ill develop the 36,580㎡ site around Gujeongmun Gate and Indoor Gymnasium from this year to 2030 in three phases (25,516㎡ in phase 1, 3,537㎡ in phase 2, 7,527㎡ in phase 3). The total project cost is estimated to be 111 billion won.

In the first phase of the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novation hub (total floor area 22,300㎡), which will be launched this year, 51 billion won (19 b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4 billion won from the provincial government, 4 billion won from the city government, 24 billion won from the LH) will be invested.

With the goal of opening in 2026, we will prepare a space for companies to move in, research institutes, and a comprehensive corporate support center centering on cul-

tural contents, ICT, and bio convergence.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is linked with the Jeonju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TOWN),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the high-tech digit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centered on the metaverse, and is expected to become a base for future industry nurturing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second phase project will invest 30 billion won in 2025-27. It lays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by establishing a base for advancement of R&D and entry into the global market.

The third phase of the project to be completed in 2030 focuses on the creation of an ECO complex. We will build a War Label town for our employees by equipping them with residential facilities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star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establishing an industrial complex plan within this month and make it possible for companies in related fields to move in by 2026 as quickly as possible.

High-level officials from Jeollabuk-do and Jeonju-si directly participate in the on-site due diligenc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this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and as they show an active will, such as briefings, expectations for organic business execution with local governments are high.

President Kim Dong-won said, "We will create the nation's best start-up hub by well combining the know-how accumulated b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uch as startup-oriented universities, LINC 3.0, and SW-oriented universities, education and re-

search infrastructure, and networks of supporting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We expect that we will be able to catch three rabbits, such as the virtuous nature of the city, the synergy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jobs for the youth."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움을 향한 도약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국내 3번째 중입자선 암치료 설비 도입 추진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HITS



제주대학교병원은 일본 도시바 에너지시스템즈 & 솔루션즈와 중입자선 가속기 설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제주도에 중입자 가속기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사, 운용사 및 병원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해 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중입자치료는 탄소이온을 중입자가속기로 빛의 70% 속도까지 가속해 환자에게 직접 쏘아 암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고 암세포를 집중 조사(照射)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어 ‘꿈의 암치료 기술’로 불린다.

국내에는 연세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중입자가속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 제주대병원에 중입자 치료센터가 제주도에 들어서게 되면 국내 세 번째다.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gned a MOU with Toshiba Energy Systems & Solutions of Japan for the introduction of Heavy Ion Therapy System(HITS).

This MOU stipulates the role of each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ospital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institutions including investment companies, management companies and hospitals for the introduction of HITS in Jeju.

Heavy ion therapy is a treatment that destroys cancer by accelerating carbon ions to 70% of the speed of light with a heavy particle accelerator, and those ions are directly shot at the patient.. Because it protects normal cells as much as possible and intensively irradiates cancer cells, it has a high therapeutic effect and few side effects, so it is called ‘dream cancer treatment technology’.

In Korea, Yonsei Medical Center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gned a contract to introduce HITS. When HITS Center at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built in Jeju, it will be the third HITS Center in Korea.



Jump to New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아라국외봉사단, 몽골서 동물진료 봉사활동

Ara Overseas Volunteer group for Animals in Mongolia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아라국외봉사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몽골에서 동물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아라국외봉사단은 교수 6명, 학생 23명, 수의사 및 직원 8명 등 총 37명으로 짜여졌다.

아라국외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와 고양이 광견병 및 DHPPL(종합백신)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제, 중성화 수술 및 기본 진료를 실시했다.

또 사설목장 및 학교 부설 목장에서 200여 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사양 및 목장관리, 기본 구충 및 진료를 수행했다.

몽골 수의과대학과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학생과 학술 교류 및 국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The Ara Overseas Volunteer Group of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JNU conducted animal treatment volunteer work in Mongolia from the 12th to the 19th of July.

The Group consisted of 37, including 6 professors, 23 students, and 8 veterinarians and staff.

The volunteer group performed vaccinations for dogs and cats against rabies and DHPPL (comprehensive vaccine), internal and extermination of external parasite, neutering surgery, and basic treatment at an abandoned animal shelter in Ulaanbaatar, Mongolia.

In addition, specification, breeding, ranch management, basic deworming, and medical treatment on about 200 livestock were conducted at private and school-affiliated ranches.

A business agreement was also signed with the 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academic exchanges and international research.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충남대, CNU 100년을 향한 '비전 2050' 선포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nounces its Vision 2050 for 100Years:
Korea's Top National University Is Generating New Future Values!



충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교'라는 미래 100년 대학의 목표를 담은 '비전 2050'을 선포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5월 24일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직접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교'라는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의 충남대의 '비전 2050'을 공개했다. 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K-Edu 대표 대학',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 '지역 성장 주도 혁신 대학', '초광역 캠퍼스 완성'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4가지 목표 중 첫 번째인 'K-Edu 대표 대학'은 융합교육기반의 지역 선도 인재양성 교육, 국제화

부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삶의 전환기를 함께 하는 수요 맞춤형 교육, 신북방·신남방 기반 글로벌 공유대학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융합시대 맞춤형 융복합 혁신 교육을 통해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 지역맞춤형 전문실무 인재, 공유협업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며,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DSC 공유대학, 10개 거점국립대가 참여하는 KNU-10 공유대학을 통해 K-Edu 대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쌓아갈 계획이다.

두 번째,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은 글로벌 경쟁 가능 특성화 연구 분야 중점 육성, 선도연구센터 유치 통한 융합집단 연구문화 조성, 중점연구 분야와 연계한 지역 신산업 가치 창출, 해외 리더 연구자 유치를 통한 연구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

계 1위 연구 특성화 분야의 집중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개 분야 20개+α 중점 부문을 우수 선도 연구 특성화 분야로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 내 핵심 국가출연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캠퍼스 내에 유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지역성장주도 혁신 대학'은 대학-지자체-산업 연계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연계 특성화 확대, 대학에서 시작해 지역으로의 확장(지역 창업 허브 육성), 지역산업 수요에 응답하는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시스템 완성을 통해 지역 성장을 리드하는 혁신적 가치 창출 대학으로의 발돋움 을 목표로 한다. 특히, RIS사업을 통한 산-관-학 협력 모델과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우수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며, 스타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W



트업파크, TIPSE타운, 융합교육혁신센터, 디지털 혁신파크, D-Unicorn 등 지역 창업 허브를 육성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 '초광역 캠퍼스 완성'은 대덕캠퍼스(K-Edu 코어/특성화 분야 융합 대학 및 연구센터 육성), 세종캠퍼스(AI-ICT 및 융합생명과학 관련 특성화), 보은캠퍼스(의(사)과학자 관련 인재양성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타운 특성화), 내포캠퍼스(해양수산 및 수의축산 연구센터 특성화) 완성을 목표로 한다. 각 캠퍼스에 부합하는 특성화 분야 육성을 통해 초광역 캠퍼스를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In celebrating its 70th anniversa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s announced its Vision 2050. On May 24, 2022, during a proclamation ceremony held in Jeong Sim Hwa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s Baekma Grand Hall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the president of CNU, Dr. Jin-Sook Lee, unveiled Vision 2050 as a mission to become the nation's most promising university generating future values. Additionally, President Lee presented four key goals: being a K-Edu representative university, a global research initiative university, a regional growth-driven innovation university, and establishing a multiregional campus.

Achieving the first of the four goals, being a K-Edu representative university, will see CNU cultivate innovative leaders for Korea and the world through convergence education, international undergraduate courses, and customized education, and become a global sharing university based in new northern and southern

areas. The customized convergence model of innovating education aims to foster digital talents, professionals, and innovative talents besides developing the DSC regional platform in which 24 universities participate and the KNU-10 sharing campus project in which ten regional universities promote the status of K-Edu representative universities.

The second goal, being a global research initiative university, focuses on becoming the world's best research-dominated institute by creating new industry valu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specific fields, establishing a convergence research culture that attracts leading researchers, and ensuring competitiveness. To this end, CNU plans to concentrate on 20+α-focused sectors in five areas and to establish an excellent specialized research center on campus through cooperation with national institutes in the Daedeok Science Complex.

The third goal, being a regional growth-driven innovation university, aims to cre-


ate innovative values that drive regional growth by expanding specialized regional industry links, cultivating local start-up hubs, and setting up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hat satisfies local industry demand. In particular, the RIS project will accelerate industry-government-academic cooperation, foster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establish a start-up ecosystem with the Startup Park, TIPS Town, the Convergence Education Innovation Center, the Digital Innovation Park, and D-Unicorn.

The final goal, being a multiregional campus, aims to advance the Daedeok Campus as a K-Edu core/specialized campus with more research centers, the Sejong Campus in the fields of AI-ICT and bioscience, the Boun Campus as a start-up town for health care fostering medical scientists, and the Naepo Campus in the fields of marine and veterinary research. CNU is mapping out a multiregional campus, considering specialized fields for each region and a mega-city in the Chungcheong province.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직무대리 정의배 Acting President Jeung, Eui-bae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총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독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9, 2020, 2021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9, 2020, 2021)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일환 President Kim, Eel-hwa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독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독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연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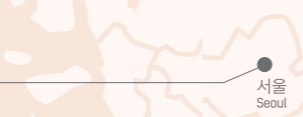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성택 President Jung Sungtae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제주도**
Jeju-do

 **서울**
Seoul

 **경기도**
Gyeonggi-do

 **춘천**
Chuncheon

 **강원도**
Gangwon-do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청주**
Cheongju

 **대전**
Daejeon

 **전주**
Jeonju

 **전라북도**
Jeollabuk-do

 **광주**
Gwangju

 **전라남도**
Jeollanam-do

 **대구**
Daegu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
Daegu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진주**
Jinju


 **부산**
Busan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을 1위(2020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2020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mployment Statistics)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공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침성인' 양성
- 2022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1위, 세계 13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13th in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 On March 1, 2021, form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ged int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rea's best competitive potential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s,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chemistry
- The leading university for Ulsan-Gyeongma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 regional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